

〈표6〉 최근 5년간 지역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출처: 통계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11	55	12	55	9	63	7	58	8	94
부산	5	157	6	168	7	151	6	165	7	173
대구	5	24	6	25	4	32	4	23	4	22
인천	10	193	7	183	9	191	9	189	10	203
광주	1	2	2	26	4	36	4	37	3	39
대전	2	31	2	34	1	28	1	30	3	43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1	7
경기	95	1,762	98	1,648	110	1,990	104	1,870	114	1,923
강원	-	-	-	-	-	-	1	7	1	11
충북	4	36	6	93	6	97	4	49	5	57
충남	5	65	5	95	4	61	5	100	3	60
전북	-	-	-	-	-	-	-	-	-	-
전남	-	-	1	10	1	13	1	14	1	19
경북	1	8	2	18	2	27	3	20	3	17
경남	7	47	10	155	11	180	10	171	11	160
제주	-	-	-	-	-	-	-	-	-	-
합계	146	2,380	157	2,510	168	2,869	159	2,733	174	2,828

## PART2 생산액·부가가치 분석

# 승승장구 성장하던 인쇄잉크업 2012년 ‘털석’ 1천억원 감소해 8천억원 초반으로 후퇴

인쇄잉크 제조사의 출하액은 2003년 4천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9천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출하액은 1천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 1개 사업체당 출하액 2012년 큰 폭 감소

인쇄잉크 제조사의 출하액은 2005년 한차례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2011년 9천억원을 돌파했던 출하액은 2012년 1천억원이나 감소해 다시 8천억원대 초반으로 주저앉았다.

10인 이상 인쇄잉크 제조사의 최근 10년간 출하액을 살펴보면, 2003년 4천억원에 불과했던 출하액이 2006년 5천억원,

2008년 6천억원, 2009년 7천억원, 2010년 8천억원, 2011년 9천억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12년에는 1천억원이나 줄어 2010년 실적인 87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천억원 초반대로 뒷걸음질 쳤다.

1개사당 출하액 역시 2008년 106억원, 2009년 107억원, 2010년 115억원, 2011년 13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12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7〉 최근 10년간 출하액 현황(10인 이상)

(단위: 백만원, 출처: 통계청)

연도	2003년	증감률	2004년	증감률	2005년	증감률	2006년	증감률	2007년	증감률
출하액	400,296	-	461,609	15.3	450,171	-2.4	517,522	14.9	547,373	5.7
연도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2010년	증감률	2011년	증감률	2012년	증감률
출하액	626,225	14.4	728,812	16.3	875,088	20	913,491	4.3	809,076	-11.4

〈표8〉 1개사당 출하액 현황(10인 이상)

(단위: 백만원, 출처: 통계청)

연도	2008년	1개사당	2009년	1개사당	2010년	1개사당	2011년	1개사당	2012년	1개사당
사업체수	59	출하액	68	출하액	76	출하액	67	출하액	66	출하액
출하액	626,225	10,613	728,812	10,717	875,088	11,514	913,491	13,634	809,076	12,258



인쇄잉크 제조사의 부가가치는 2011년 3천억원을 돌파했지만 2012년에는 크게 감소해 2천억원대로 내려앉았다.

**부가가치 2천억원대로 하락**

인쇄잉크 제조사의 부가가치는 2005년, 2007년, 2012년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11년 3천억원을 돌파했던 부가가치는 2012년 크게 감소해 2천억원대로 내려앉았다. 인쇄잉크 제조사의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2008년 1500억원 규모에서 2009년 2400억원대를 넘어선 후 2011년에는 32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 2700억원대까지 크게 뒷걸음질쳤다. 1개사당 부가가치는 2008년 32억원, 2009년 35억원, 2010년 32억원, 2011년 48억원, 2012년 41억원으로 집계됐다.

**40~50대 대표자 68.4% 차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쇄잉크산업은 50대 대표자가 37.4%(6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대표자가 31.0%(54명)로 그 뒤를 이어 40~50대 대표자가 전체의 68.4%(119명)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50대 대표자가 40.4%, 40대 대표자가 33.7%로 40~50대 대표자가 74.1%를 차지, 인쇄잉크제조업보다 40~50대 비중이 더 높았다. 또 인쇄잉크제조업의 60대 이상 대표자는 22.5%(39명)로 제조업(15.6%)보다 비중이 높았다.

〈표9〉 최근 10년간 부가가치 현황(10인 이상)

(단위: 백만원, %, 출처: 통계청)

연도	2003년	증감률	2004년	증감률	2005년	증감률	2006년	증감률	2007년	증감률
부가가치	156,150	-	179,410	14.8	173,755	-3.1	188,462	8.4	182,334	-3.2
연도	2008년	증감률	2009년	증감률	2010년	증감률	2011년	증감률	2012년	증감률
부가가치	189,020	3.6	241,868	27.9	250,596	3.6	324,456	29.4	276,823	-14.6

〈표10〉 최근 5년간 1개사당 부가가치 현황(10인 이상)

(단위: 백만원, 출처: 통계청)

연도	2008년	1개사당 부가가치	2009년	1개사당 부가가치	2010년	1개사당 부가가치	2011년	1개사당 부가가치	2012년	1개사당 부가가치
사업체수	59		68		76		67		66	
부가가치	189,020	3,203	241,868	3,556	250,596	3,297	324,456	4,842	276,823	4,194

〈표11〉 2012년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출처: 통계청)

대표자 연령대별	제조업(비중)	인쇄잉크업(비중)
20세 미만	6(0.0)	-
20~29세	3,485(0.9)	1(0.5)
30~39세	34,183(9.4)	15(8.6)
40~49세	121,513(33.7)	54(31.0)
50~59세	144,671(40.4)	65(37.4)
60세 이상	56,536(15.6)	39(22.5)
계	360,394(100.0)	174

〈표12〉 2012년 대표자 성별 현황

(단위: 명, 출처: 통계청)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130	16	146	140	17	157	151	17	168	140	19	159	149	25	174